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작자 미상, 『착한 목자』, c1975.  
대리석 조각, 어바인 착한 목자 경당, 미국.

## † 오늘의 전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18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종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서는 성경 말씀과 전례 가운데서, 기도 중에, 형제들의 음성을 통해,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까? 혹시 세상 걱정과 욕심에 마음이 팔려 모른 척하지는 않습니까?

**제1독서** 사도 4,8-12

**제2독서** 1요한 3,1-2

**복 음** 요한 10,11-18

**입 당 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화 답 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이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 | 교구 성소담당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 정착한 이후, 그 후예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나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고 더욱 강해져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야곱 집안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임금이 군림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국민 보다 더 많고 강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탄압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누군가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그가 누구인가? 모세? 모세라고 생각했으면 완전한 답이 아니다. 모세는 일꾼에 불과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에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다.’”(여호 24,2,5-6)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과정 속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지금의 나도 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먼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나도 내가 먼저 여럿 종교 가운데 가톨릭

신앙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믿어 보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간청하고, 그 하느님께 나의 현재와 미래를 내어 모두 맡기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당신을 따르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별히 사제직과 봉헌생활을 통하여 당신 구원계획에 일꾼으로 협력할 젊은이들을 골라서 부르신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셨다. 교회는 오늘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에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함을 잊지 않도록 환기시킨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굴복이 아니라 자유롭고 능동적인 응답을 기다리시는데, 그 응답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두 손을 모으자. **궤산**



제52차 성소 주일 교황성하 담화문(요약)

## 탈출, 성소의 본질적 체험

부활 제4주일은 당신의 양들을 아시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며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우리 삶을 봉헌하겠다는 바람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명에 우리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소에 대한 응답의 핵심인 바로 그러한 **탈출**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탈출기는 구원 역사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적 힘을 설명해줍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하던 옛 인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사업입니다(에페 4,22-24 참조). 이 과정은 참된 **탈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소의 바탕에는 신앙 체험의 이러한 근본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나선 이들은 하느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며 풍요로운 삶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마태 19,29).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성소는 사랑의 초

대입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매료시켜 우리를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이끌며, “자기만을 찾는 닫힌 자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자기를 줌으로써 자아를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참으로 하느님을 발견”(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6항)하도록 이끕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탈출의 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서 벗어나 여정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놀라고, 당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 신비를 찬양하고 이웃에게 넓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더욱 풍요롭고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소의 모범이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fiat).**”라고 대답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커다란 용기로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당신 삶의 계획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맡기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5년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프란치스코**



2015년 세계 이민의 날 교황성하 담화문(요약)

## 모든 이의 어머니, 국경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서는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자체”(『복음의 기쁨』, 209항)이십니다. 가장 취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는 우리 모두 가장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노예살이의 피해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고통 받으시는 얼굴을 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나그네이며 모든 이의 어머니인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특히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 안에 계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분명 어려운 생활 조건과 온갖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이민과 난민이 있습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인 국경 없는 교회는 세상에 환대와 연대의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 문화 안에서는 그 누구도 쓸모없거나 성가신 존재, 또는 쓰고 버리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이주가 일어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뒤로하고 더욱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찾아 여행을 나섭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이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의심과 적대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편견은,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을 존중과 연대로 환대하라는 성경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나온 용기는 우리가 인간의 비참에서 떨어진 거리를 줄힐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민과 난민, 강제 이주민과 망명자들에게서 당신을 알아 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누려온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문화의 특징을 지닌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연대와 친교와 복음화에 새롭게 헌신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공존하도록 해 주는 단순한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덧붙여 교회의 사명은 국경을 초월하고 방어와 두려움, 무관심과 소외의 태도에서 벗어나... ‘만남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태도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주 현상의 세계화에 맞서, 이민들의 처지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도록 사랑과 협력의 세계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종종 서로 맞물려 있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차츰 없애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민과 난민을 향한 연대에 덧붙여, 세계적 차원에서 더욱 정당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와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용기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민과 난민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마음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가 넓은 마음으로 온 인류 가족을 향한 모성애를 드러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집트로 피신한 성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의 마음과 요셉 성인의 세심하게 돌보는 마음이 하느님께서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간직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와 똑같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겨드리며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9월 3일

**프란치스코**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 벧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

영화 『선들러 리스트』를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이었던 아돌프 선들러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인 간호사이자 열심한 교우였던 이레나 선들러는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유대인 가족들을 몰래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방이나 박스, 심지어는 관까지 동원해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이들과 어린이들을 도주시키고, 개를 훈련시켜 길에 나서면 으르렁거리게 만들어서 숨어있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뜻을 같이 하는 30명의 여인들을 모아 ‘체고타’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2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조했습니다.

1943년, 게슈타포에 게 발각된 그녀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를 취조한 나치들은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녀의 다리를 부러트리고 손발톱을 뽑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다버렸지만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기적적으로 동료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바셈에는 그녀를 기리는 나무가 서 있고, 폴란드 정부는 그녀에게 최고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팔로**



이레나 선들러 (1920~2008)

### 금주의 성인

|        |                                                                                                                                                                      |
|--------|----------------------------------------------------------------------------------------------------------------------------------------------------------------------|
| 4월 26일 | 성 마르첼리노(교황, 순교자, 304년), 성 아나클레토(교황, 순교자, 90년)<br>성녀 엑수페란시아(동정녀, 트루아, 380년)                                                                                           |
| 4월 27일 | 성 베드로 아르멘가우디오(수사, 1238~1304년), 성녀 지타(동정녀, 하녀, 1218~1272년)<br>성 안티모(주교, 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
| 4월 28일 | 성녀 발레리아(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성 베드로 샤넬(신부, 선교사, 순교자, 1803~1841년)<br>성녀 테오도라(동정순교자, 304년), 성 비탈리스(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br>성 크로난(수도원장, 로스크레아, 626년), 성 폴리오(독서자, 순교자, 판노니아, 304년) |
| 4월 29일 | 성녀 아바(수녀원장, 디낭, 845년경), 성 후고(수도원장, 클뤼니, 1024~1109년)<br>성녀 가타리나(수녀, 교회학자, 신비가, 시에나, 1347~1380년)                                                                       |
| 4월 30일 | 성 마리아노(독서자, 순교자, 259년), 성 비오 5세(교황, 1504~1572년)<br>성녀 소피아(동정순교자, 페르모, 250년경), 성 아주토르(수도승, 1131년)<br>성 요셉 코톨렌고(신부, 설립자, 1786~1842년), 복녀 힐데가르데(왕비, 754~783년)           |
| 5월 1일  | 성녀 그라타(과부, 베르가모, 8세기), 성 마르쿨프(수도원장, 낭퇴이유, 558년)<br>성녀 베르타(수녀원장, 순교자, 아브네, 680년경), 성 아마토르(주교, 오세르, 418년)<br>성 시지스문도(왕, 순교자, 부르고뉴, 558년), 성 아사포(주교, 웨일즈, 600년경)        |
| 5월 2일  | 성녀 마팔다(공주, 수녀, 포르투갈, 1252년경), 성녀 조에(순교자, 팜필리아, 127~140년경)<br>성 아타나시오(주교, 과부, 교회학자, 알렉산드리아, 295~373년)<br>성 엑수페리오(순교자, 팜필리아, 127~140년경), 성 울탄(수도원장, 페론, 686년)          |

##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4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성모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1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하셨다.

## ■ 이종흥 그리산도 몬시뇰 장례미사



대주교님께서는 4월 21일(화) 오전 10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4월 19일(일)에 선종하신 故 이종흥(그리산도) 몬시뇰 장례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 17주간, 2015. 4. 26. ~ 5. 2. >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토빗 1-3장 | 4-6장 | 7-11장 | 12-14장 | 유딧 1-6장 | 7-9장 | 10-13장 |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

### 『토빗기』

-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삶의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당신 구원의 위업을 여실히 보여주신다.
- ➔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삶보다 주어진 삶을 성실과 겸손, 인내로 일관할 때 비로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 『유딧기』

-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며 승자인가'라는 질문이다. 주님께 대한 신뢰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 ➔ 하느님을 삶의 원천으로 한 진지한 숙고와 고통을 직시하는 삶의 진지한 모습을 소개한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 신앙의 원리는...



## 미사안내

|                  |                      |                               |                       |
|------------------|----------------------|-------------------------------|-----------------------|
|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 4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및 피정               | 5월 2일(토) 10:30 프란치스카눔 |
|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5월 2일(토) 11:00 대안성당   |
|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 4월 27일(월) 11:00 수성성당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br>첫 토요 신심미사 | 5월 2일(토) 11:00 성모당    |
|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 4월 28일(화) 14:00 계산성당 |                               |                       |

## 대리구 소식

## 3대리구 성모성월 ‘성모의 밤’

일시: 5.4(월) 3대리구 꾸르실리스파회  
19:30 묵주기도 / 20:00 미사봉헌  
일시: 5.11(월) 3대리구 사회복지위원회  
19:00 묵주기도 / 19:30 미사봉헌

## 성소 | 피정

**예수성심에로의 초대**  
기간: 5.3(매월 첫주) 14:00~17:00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여성(14~35세)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시간에  
장소: 원하는 장소에서  
문의: 조대윤(야고보) 신부,  
(010)3777-4688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5.1(금) 18:00~3(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043)213-9103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5.2(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지극한 사랑의 그릇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587-7300

## 한비아와 함께 걷는 '제주 순례(오름) 피정'

기간: 6.25(목)~27(토)  
장소: 제주성이시돌피정의집  
참가비: 25만 원(항공료제외) 선착순마감  
문의: (064)796-4181

교육 | 모집

## 모래놀이 치료사 과정

교육기간: 6.6(토)~7(일)  
신청기간: 4.27(월)부터  
문의: 샬트르성바로수녀회(서울관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대구지부  
(070)8823-6062

## 2015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5.4(월)~18(월)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몬테소리대학원 신설)

문의: 850-3583(일반), 3505(교육)  
660-5512~3(특수)

## 46차 마 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3(목)~8.13(목)  
런던 관광 & 유럽 학생들과 연수  
대·일반: 6.28(일)~8.9(일)  
세계 각국 학생들과 연수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6개소)  
대상: 성인 지적 장애인 (30명)  
이용료: 소득수준별 실비부담  
문의: 721-7090, 사회재활교사 최희승

##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호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 UP 학습코칭

-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 종 선 (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 (리피엘)  
 365일연중무휴진료  
 \*매일 : 오전 9시 ~ 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 ~ 밤 9시 까지  
 ☎ **대표전화 260-7777** 한영한마음 **260-757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구 달성궁교회자리)



스피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 스피치킴 교육

###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식·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비나)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2박 13일)  
**출발일 : 2015년 6월 29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양재나)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휴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i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부고



**이종흥(그리산도) 몬시뇰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이종흥(그리산도, 향년 95세) 몬시뇰께서 지난 4월 19일(일)에 선종하셨습니다. 4월 21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몬시뇰의 묘소는 남산동 성직자묘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몬시뇰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27일(월)은  
(故)김경식(보나파시오) 몬시뇰  
선종 5주기입니다.

후원: 천부성당 50주년재건축후원기금마련

**교육 | 모집**

**2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4.30~6.4(매주목 5주간) 9:30~14:30

※5.28(목) 한주는 쉽니다

장소: 5대리구 봉곡성당 / 10만 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 교육**

일시: 5.11(월)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황하철(안드레아) 신부 / 1만 원

문의: 노인사목 담당, 250-3077

**스카우트 지도자 초급과정 교육**

일시: 5.16(토) 13:00~17:00

장소: 교육원 다동2강의실(꾸르실로관 앞)

대상: 학생지도자관심있는분(대학생,주부 등)

참가비: 무료(청소년국 지원)

마감: 5.11(월) / 신청: (010)2810-8661

**빛메제기도 초대**

일시: 5.9(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메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말씀과 현실치료를 통한 자기이해**

과정: 5.11(월) 10:00~11:30(8주간)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13

**채용 | 안내**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상담전화: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교구청 휴무**

교구청은 5.1(금) 쉽니다.

**행사 | 모임**

**바느기도회 월례미사**

일시: 4.30(목) 14:00 기도 /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주제: 병자와 가난한자,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 오신 성모님

**발달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일시: 매월 첫주일(5.3) 16:00

장소: 성 토마스성당

대상: 발달장애자, 가족, 관심있는자

**경북 혁신도시 내 울곡성당 미사**

일시: 5.10(일)부터 11:00

장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앞

문의: (054)439-8101

**김종숙(요안나) 성물도예전**

기간: 5.1(금)~13(수)

장소: 교구청 안익사(한옥) 마당

주제: 성모성월과 어머니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Car Body Make-up**  
차량의 몸체에 화장을 입히자  
차량광고 전문업체 · 1급정비사업체  
**CBM 대동정비**  
차량광고도색, 차량랩핑, 실사출력  
학원차량전문, 기업차량도색 및 랩핑  
특수도장 대형 열처리 부스 3기 보유  
[www.dgcar.co.kr](http://www.dgcar.co.kr) 황 용 호(루치아노)  
☎ (053)963-4794 010-5913-8417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